

코로나19 고용 특별지원 시책 추가

남원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남원시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가시책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조업이 부분 중단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400명에게 4억원의 예산으로 1인당 일 2만5,000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요건은 코로나19 피해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2020. 2. 23)정상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모든 업종의 사업

장이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시책으로 4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7만7,194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 생계비를 483명에게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신청 전 3개월간의 용역 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노무비)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으로, 특별고용 및 프리랜서 확인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생계비 지원은 남원시일자리지원센터(620-5891)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

기일자리 제공 시책으로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며,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1개월 이상인 실직자에게 우선 지원하며, 대상자 선정 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점수, 방역 등 공공일자리 참여하게 되고, 1인당 월 180만원, 최대 540만원(3개월)의 인건비를 지급받게 된다. 단기일자리 참여는 4월 남원시 일자리경제과(620-633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주민 피해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시책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개학 연기로 판로 막힌 친환경농가 도와

군 소속 공무원 대상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추진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에 처한 친환경농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최근 코로나19로 정부가 학교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친환경농가의 판로가 막히자 순창군이 이들을 돕기로 한 것이다.

군은 1차로 소속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신청을 16일과 17일 양 이틀간에 걸쳐 신청받아 지난 20일, 공무원 74명에게 165만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마쳤다.

1차 농산물 판매를 마친 군은 지난 23일과 24일에도 군 소속 공무원을 대

상으로 2차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161명에게 313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신청이 들어와 오는 31일 공급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은 도내 8개 시군 소속 친환경농업법인의 연합단체인 전북친환경연합사업단이 학교급식용 계약체결을 마친 20여개 품목이다.

이번 판매된 친환경농산물 중 순창에서 생산된 품목은 미나리, 상추, 모듬채소, 딸기 등 4개 품목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판매가격이 생협 판매가격 대비 10~3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져 농가 뿐만 아

니라 이번엔 농산물을 구매한 공무원의 만족감도 높았다.

더욱이 학교 급식납품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검증이 까다로운 만큼 구매자인 공무원들도 이번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이번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은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도내 지지체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농가들 또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소비촉진 행사로 판매가 이뤄져 농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고품질 벼농사 위한 지도 강화

종자 선별요령·종자소독·묘판 파종 전 싹틔우기 등 철저 당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가 한해 벼농사 첫걸음인 종자 선별요령, 종자소독, 묘판 파종 전 싹틔우기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타 품종이 섞이지 않은 정부보급종, 자율교량 채종포 등 고품질의 순도가 높은 우량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

건강한 종자는 비중을 이용한 염수 선을 실시하는데 메벼는 염수선 비중을 1.13(물 20L+소금 4.2kg), 갈벼는

비중 1.04(물 20L+소금 1.36kg)에서 가라앉는 벼씨를 사용한다.

까락이 제거되지 않는 종자는 탈망기 등을 이용해 제거한 후 염수선을 실시한다.

또한 종자로 전염되는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종자소독 방법 중 약제침지소독법은 물 20L에 적용약제와 종자 10kg을 넣고 온탕소독기를 이용해 30℃, 48시간

담가 소독 후 맑은 물로 2회 헹구준다.

친환경 재배의 경우 온탕소독방법을 이용하며 60℃의 물 100L에 벼 종자 10kg을 10분 담가 소독하고 냉수에 10분 이상 종자를 담근다.

30℃에서 1-2일 침중후 후 벼씨 싹틔우기는 30-32℃에 어두운 조건에서 보통 1일 정도 두어 하얀 싹 길이를 1mm 내외로 키우면 적당하다.

센터 담당자는 "파종 전 소독 및 싹틔우기 지도 강화로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시행

임실군, 4월 1일부터 공공요금·사회보험료 지원

임실군이 공공요금 지원 등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매출감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같은 날 접수가 시작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접수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만으로 접수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실사랑상품권 확대 정책 등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임실군 공무원 급여 중 복지포인트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토록 하는 등 지역상권 살리기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임실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발행액도 기존 20억원에서 100억원을 추가, 총 12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순창군이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무농약 고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사육한 천적인 '마일즈응애'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무농약 고추 재배농가에 '마일즈응애' 무상 공급

순창군, 천적 이용 친환경농업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메카 순창군이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무농약 고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사육한 천적인 '마일즈응애'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마일즈응애'는 고추 농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인 갈라병을 매개하는 총채벌레를 잡아먹는 천적으로, 육묘상으로 유입되는 해충을 피치하는데 효과적이다.

공급 대상자는 무농약 고추를 재배하기 위해 자가 육묘하는 농가들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양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농가들이 커피 테이크아웃 잔을 가지고 오면 그 안에 천적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 천적을 담아주는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고 있는 커피 테이크아웃 잔을 재활용하여 천적을 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군은 올해 시험 생산 및 공급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의료원,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의료인모두 음성

남원의료원은 25일 대구에서 이송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한 의료진 및 관계인들의 검사 결과 현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확진자 47명이 입원 치료 후 23명이 격리 해제됨에 따라 34명의 의료진이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 유전자 증폭(CPR)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격리 중인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환자 및 방역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꿈꾸는 마을학교 수강생 모집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이규용)에서는 2020년 꿈꾸는 마을학교 씨앗단계 정규과정형 교육 주/야 2개반을 4월 하순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숨은 인적자원을 발굴 양성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교육에서는 공동체의 이해 및 기초자원발굴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사례, 사업구상, 배움 여행, 비전 세우기 등을 강사의 강의와 수강생의 참여형 워크숍 등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063-620-56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꿈꾸는 마을학교는 2017년부터 올해로 4년차이며 총 198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남원시의 대표적 '시민 공동체'의 함양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수료생에게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참가 시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센터 관계자는 "관심 있는 남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아리나 소모임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체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